

나치의 유대인 탄압과 저항*

최 형 식 (예원예술대학교)
(tschoihs@hanmail.net)



국문요약

유대인들은 진실로 나치의 압제와 위협 속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전혀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간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절멸정책의 수동적인 희생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치체제를 거부하였으며 스스로를 방어하였고 나아가서는 나치에 대항하여 필요한 투쟁에 목숨을 바치기도 하였다. 1933년 - 1945년 사이에 독일 유대인들이 나치에 대항하여 투쟁한 저항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순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저항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나치체제에 대한 유대인들의 순응과 환상 그리고 저항사이에 다양한 지형이 존재하였음을 드러내며, 독일 유대인들의 태도나 행위들을 '안으로부터'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흔히 일반화의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유대인 저항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유대인들이 거대한 외부의 충격과 억압에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그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유대인은 무기력한 희생자로, 정책의 협력자로 단순히 다루어졌다면 이제

* 이 논문은 2014년도 예원예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유대인들은 다양한 모습의 행동하는 실천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실 저항에 대한 연구는 이미 사회사가 많은 역할을 하였다. 특히 폭력투쟁을 통한 물리적 저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따라서 여전히 폭력의 주체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억압당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의 태도와 다양한 형태의 저항은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일상사 연구는 개별인간과 집단의 체험 그리고 개인의 기록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억압과 공포의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그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였으며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드러내면서 나치시대가 체제에 대한 순응과 저항의 이분법적 관점에서는 획일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유대인, 저항, 탄압, 강제이송, 허버트 바움 그룹, 사보타주, 은신, 자살

I. 들어가는 말

오래 전부터 유대인 문제에 대한 독일현대사 서술은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학살에 집중하였다. 독일의 역사서술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서술에서도 유대인들은 항상 단순한 희생자로만 다루어졌으며 거대담론에서도 제외되기 일쑤였다. 역사가들은 유대인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반유대주의의 탄생과 기능 그리고 연속성 문제에 집중하였으며 나치의 반유대 정책과 홀로코스트라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에 집착함으로써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영역을 통합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역사서술을 선호하였다. 다시 말해 유대인문제에 대한 역사서술에 있어서 유대인은 항상 피해자, 희생자 그리고 대상으로서만 등장하였지, 유대인이 주체가 되는 유대인의 저항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홀로코스트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 문서들 그리고 필름들이 존재하지만 유대인 저항에 대한 연구는 정말 보잘 것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대인의 저항은 전무했던 것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유대인의 문제에 있어서 나치에 대항한 독일 유대인의 저항의 문제는 1970년 이전까지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특히 독일역사학계에서는 나치 체제하에서의 유대인들의 태도나 저항에 대한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금기사항의 하나였다.

독일역사가들은 종전 이후 오랫동안 독일 유대인의 역사, 반유대주의 그리고 나치의 유대인 박해 문제를 연구주제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일 의지도 없었다고 한다면 유대인 저항의 문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였다. ‘독일 파국’이라는 엄청난 충격의 역사현실 앞에서 ‘유대인 파국’의 문제는 이들에게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어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연구는 유대인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냉전의 영향도 유대인의 저항에 대한 역사서술을 가로 막았다. 그 이유는 나치에 대항한 유럽에서의 일반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저항에서도 공산주의의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저항의 개념은 협소하여 비전투적 저항이나 사회주의 저항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였다.¹⁾

유대인 저항의 연구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여전히 독일군이 점령한 지역, 특히 동유럽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력적인 저항에 집중하였다는 점이다. 바르샤바 게토의 유대인 반란, 집단수용소와 절멸수용소에서의 저항과 더불어 폴란드와 소련 그리고 발칸국가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의 빨치산 운동에의 참여 등이 대표적인 주제였다는 점에서 독일에서의 유대인의 저항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러나 유대인의 투쟁활동과 그 방법은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탄압의 과정이나 탄압의 강도에 따라 저항이 다양한 형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의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지 않고, 투쟁과 저항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 곳, 즉 전쟁터나 게토에서의 ‘저항’의 모습은 획일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상의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였던 독일에서의 유대인의 저항은 개념의 외연이 폭 넓게 확대된 조건 속에서는 저항의 다양한 형태를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²⁾ 또한 지형적인 조건이나 나치의 가혹한 탄압과 그물망 같은 감시체제 그리고 은신하던 유대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독일인들의 수를 고려하면 적극적이고도 집단적인 저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의 저항을 거론할 때 소극적 저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치가 유대민족 전체를 절멸할 것을 계획하였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 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했다. 이들은 저항해야 할 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저항할 조건은 더욱 열악하였다.

1) 1970년대 유대인 역사학자나 비유대인 역사학자들의 새로운 세대, 즉 젊은 지식인들이 역사학 분야를 주도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1974년 역사학 대회에서 독일-유대인 역사문제가 처음으로 중요한 주제로 채택되었다. 이와 병행해서 유대인 저항 연구에 대한 관심도 이전 보다 분명 증폭되었다.

2) 이에 대한 연구에 기여한 학자로서는 A. Paucker, H. Eschwege 그리고 K. Kwiet 등이 있다. 이들은 전승된 아카이브와 다큐 기록물들을 찾아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유대인의 저항을 연구중심 주제로 삼았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방어전략과 생존전략의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면서 다양한 저항의 모습을 제시한 유대인 저항연구의 선구자들이었다

게다가 유대인공동체는 노쇠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 있었고 체제에 이미 순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효과적인 저항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저항개념의 외연을 확대하여 그 개념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나치에 대한 순응과 저항사이에 다양한 지형이 존재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서 독일 유대인들의 태도나 행위들을 ‘안으로 부터’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흔히 일반화의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을 유대인 저항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거대한 외부의 충격과 억압에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그 반응이 저항의 개념에 어떻게 연결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II. 저항의 다양한 개념

저항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유대인의 저항이 이렇게 때늦은 배경은 무엇이며, 심지어 유대인의 저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저항개념의 다양성이 불가피하게 전제되어야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가 유대민족 전체를 절멸할 것을 계획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했다. 이들은 저항해야 할 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저항할 조건은 더욱 열악하였다. 게다가 유대인공동체는 노쇠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 있었고 체제에 이미 순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효과적인 저항을 기대할 수 없었다. 더욱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무력저항이나 폭력적인 저항은 생소한 것이었다(Jochmann 1994, 46).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나치가 정권을 획득한 몇 년 후에도 여전히 과격하고도 제도적인 반유대주의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나치체제의 위험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치가 정권을 획득하자마자 시작된 유대인 상점에 대한 보이콧이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절망과 희망이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동시에 보였다. 그리고 나치의 위협을 충분히 그리고 확실히 인식하였던 유대인들은 독일사회 안에서 다양한 정치성향에 따라 공산주의자로서 사회민주주의자로서, 보수주의자로서, 자유주의자로서 다양하게 그들 집단의 사고와 환상을 공유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였으며 그 다음이 유대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저항의 유대인들은 유대인 집단 안에서 저항활동을 하기 보다는 독일 사회 안에서 반파시스트 저항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이것은 독일유대인이 이시기에 얼마나 독일사회

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저항을 계획하였던 유대인들조차도 실행으로 옮기는 데는 머뭇거리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저항이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테러를 야기할 뿐이라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걸림돌은 유대인들에게 국가가 범외국가일지라도 국가에 대한 저항의 전통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유대인 집단내부도 상당히 분열되어 있어서 조직적인 저항을 위한 통합적인 중심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Jochmann 1994, 46-47). 이러한 배경들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나치정권의 조직적이고 철저한 탄압으로 유대인들에게 소극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저항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저항의 유형은 우선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는 것(Selbstbehauptung)이었다. 유대인들은 최악의 상황에 적응하며 굴욕 앞에서도 각자의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은 일종의 방어 메카니즘이었다. 이러한 방어 메카니즘은 더욱 고통을 느끼는 일상의 삶을 참아내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조건 속에서 자신의 자화상을 일그러뜨리지 않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최형식 2015, 284).

그럼 도대체 ‘저항’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으며, 어디까지 저항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저항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각 개인이나 집단이 인권침해나 권력남용 그리고 위법 행위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래서 저항은 근대 자연법의 원칙이나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의 원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저항은 부정과 부당함에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합법적이라고 하는 저항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명과 다르다. 혁명은 폭력적인 수단으로 기존의 사회질서와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도모하려고 한다면 저항은 기존의 질서유지 또는 그것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최형식 2015, 284-285).

나치의 반유대적 탄압정책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정책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욕, 분리, 등록, 표시, 집결, 추방 그리고 살육을 ‘저항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저항은 등록과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어기는 행위, 집결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추방을 피해 도피하거나 자살하는 행위를 실천하는 모든 것 조차를 일컫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대인정책의 단계별 행동지침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거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저항하였다. 나치즘과 관련하여 저항은 이렇게 나치체제에 대항하는 다양한 태도나 행위의 폭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다시 말하면 1944년 7월 20일의 히틀러 암살시도와 같은 공격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나치정권의 유혹을 거부하거나 나치정권의 압제에 순종하지 않았던 태도, 즉 도피나 자살과 같이 체제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매우 소극적인 저항행위도 저항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받아들인다면 Peter Steinbach와

Johannes Tuchel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치체제에 있어서 저항은 도피와 은신 그리고 자살과 같은 소극적인 저항에서부터 이주와 탈출, 사보타지, 반파시스트적인 내용의 삐라제작과 유포와 같은 공개적인 저항 그리고 정권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인 음모와 암살과 같은 공격적인 저항,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Steinbach와 1994,240-242).

유대인들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인 음모나 암살에 가담하는 것은 위에서 서술한 현실을 고려하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세 번째 유형은 논외로 하겠다. 본고에서 다루는 첫 번째 유대인 저항의 유형으로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으로서 ‘탄압에 대한 항의와 청원서 제출’, ‘규정위반’, ‘삐라제작과 유포’, ‘사보타지’ 그리고 ‘나치시설물 방화’와 ‘탈출’을 대표적인 독일유대인의 저항단체였던 ‘Herbert - Baum - Gruppe’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적극적 저항에 가담한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젊은이들이어서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거나 시온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한 편으로는 나치즘에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였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반파시스트 저항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시온주의자였다는 점에서는 독일에 대한 애착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이스라엘국가에 대한 희망으로 탈출을 감행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두 번째 유대인 저항의 유형으로는 소극적 저항으로서 ‘도피와 은신’ 그리고 ‘자살’을 거론할 수 있다. 박해를 피해 거주지를 떠나 도피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집단의 역사적인 전통이었다. 이 전통은 항상 유대인 공동체의 위기의식 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원동력이었다. ‘자살’은 절망의 극단적인 결과로서 유대인들의 삶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41년 말 이후, 즉 독일 유대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강제이송이 시작되었을 때의 절망은 그 이전의 절망과 질적으로 달랐다. 많은 유대인들이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자살은 이미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 잔인성이 드러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11월 포그롬 (Novemberpogrom, 또는 ‘제국수정의 밤’이라고도 함) 시기에 또다시 상승하였으며 1942년 강제이송시기에 절정에 달했다.

Ⅲ. 나치의 유대인 탄압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는 1920년 중반이후 몇 년 동안 그 열기가 식었지만 1930년에 들어서서는 세계대공황과 파시즘운동 그리고 권위적 정부의 등장으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독일에서는 특히 반유대주의가 반공산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인종주의와 혼합되어 폭넓게 받아들인 신드롬의 한 요소였다.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NSDAP(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약칭 나치당)가 득세하는 과정에서 베르사유 조약, 영 플랜 그리고 세계대공황과 볼셰비키의 위협이라는 선동적 주제들이 지배적이었다면 이 때 유대인 문제는 항상 거론되었던 주요 주제였다. 그 중에서도 세계대공황은 1930년부터 제국의회선거에서 나치당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치당의 당원 수도 크게 증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면 이 과정에서 '유대인에 대한 투쟁'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나치지지자들의 우선적인 동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반유대주의는 여전히 농촌지역 주민들과 중간계층의 직업집단 그리고 대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서로 다른 다양한 당내의 구성성분을 통합하는데 기여하였음은 분명하였다.

제국의회선거에서의 승리이후 나치당은 반유대적 공격과 1933년 이전에는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던 유대인상점 불매운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나치지지 학생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반유대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유대인 동료학생들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행패와 선동 외에도 Dirk Walt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NSDAP에는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식의 흐름이 있었다. 나치당은 이미 1931년부터 호적관리 특별공무원법안, 인종법안, 유전병관리법안 등을 위한 세부적 계획들을 세워 놓았다. '보수혁명'의 주창자들은 유대인의 동화를 중단하고 유대인을 독일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정책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이후의 나치의 유대인정책, 구체적으로는 족외혼의 금지와 유대인 공동체의 해체, 대학교육에서의 유대인 배제, 대도시에서의 유대인집단 게토화 등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파펜정권에 나치가 합세하면서 극우적 사고에 기초한 정책들은 더욱 늘어나 헌법의 수정까지도 가져왔다. 괴링(Hermann Göring)과 슈트라쎈(Gregor Strasser)와 같은 민족사회주의자(나치주의자)들은 이론적인 이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그중에서도 유대인에게 외국인 권리부여, 정부고위직에서의 해고, 동유대인의 추방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였다.(Broszat 외 1989, 39-45) 그리고 거리에서의 반유대주의 활동의 금지는 유대인에 대한 폭력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1932년 여름, 내전을 방불케 한 나치의 테러공격은 가끔 유대인이 목표이기도 하였지만, 우선은 공산당과 사민당이 공격목표였다. 여하튼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유대인들의 독일시민적 지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바이마르 공화정 정부는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태도로, 다른 한편으로는 체념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하여 NSDAP는 반유대적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선동전략으로 삼았으며 유권자들은 대체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1933년 이후에는 이언 커쇼(Ian Kershaw)가 적절히 묘사한 것처럼 과격한

민족사회주의자들의 반유대적 폭행과 유대인들을 배제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들이 번갈아가면서 과격해지는 양상으로 작동하였다(Kershaw 2009, 53-66).

1933년에 반유대주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일어났다. 이제 반유대주의는 과격한 반유대적 정당이 권력을 장악한 한 국가의 독트린이 되었다. 1933년 3월 유대인 테러와 유대인 상점 보이콧이 발생하면서 구체적인 반유대적 조치와 정책들이 이어졌다. 바로 그 다음해부터 유대인들은 제 3제국시기 동안에 총 2000여 개의 법안과 규정에 의해 경제적으로 약탈당했으며 사회적으로는 분리되었고 국가공직에서는 축출되었으며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았고 동시에 물리적인 위협도 감수해야만 했다. 나치당의 강령에 등장하는 이러한 ‘차별화 정책(Diskriminierungspolitik)’은 새로운 정권이 유대인 집단을 탄압하기 위한 정책 중 가장 첫 번째 것이었다. 유대인 차별화 정책은 분리와 고립의 과정을 거칠 것이었으며 다음 단계로는 이주와 추방을 목표로 하였다.

반유대적 정책은 히틀러의 주도하에, 그리고 수많은 당 관료들과 일반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역동적인 추진력을 동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테러와 프로파간다는 정부조치와 법적 규정들과 함께 병행하면서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눈치를 본다는지, 독일경제를 위한 유대인들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문제도 1937년까지는 유대인탄압정책의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나치당이 공식적으로 주도한 1933년 4월 1일의 보이콧은 2000여개의 반유대적 법안 중 첫 번째 것이었지만 국제적 비난을 고려하여 하루로 한정하였다. 이어서 4월7일에는 공직회복을 위한 법안(Gesetz zur Wiederherstellung des Berufsbeamtentums)으로 정치적 적들과 유대인들을 공직에서 제거하는 조치가 등장하였다.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나 1차 대전 참전용사(Frontkaempfer)들에게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에(이들도 1935년 11월 이후에는 모두 해고되었다.) 단지 2500명만이 이 법안에 해당되었지만 다음해에는 다른 직업분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선구적 의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수많은 개별 조치들에 의해 의료분야, 법조계 그리고 방송계와 문화단체에서 퇴출당하였다. 그리고 유대인 대학생 할당조치(Quotenregelung)는 유대인들의 대학진학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Broszat 외 1989, 62-64). 이 분야들은 유대인들이 특히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점에서 반유대적 조치들은 유대인사회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였다. 스스로를 독일인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며, 법과 질서를 어느 독일인들보다 신뢰하였던 유대인들은 ‘유령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이러한 위협에 반응하였다. 정치적으로 위협에 노출된 소수만(25,000명 정도)이 1933년에 이미 독일을 떠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유대인 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분파들은 그간의 갈등과 세계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933년 4월에 경제적, 사회적 지원기관으로서 ‘원조와 재건을 위한 독일유대인 중앙회(Zentral ausshuβ der deutschen Juden für Hilfe und Aufbau)’를

창설하기로 합의 하였다. 나치정권은 체제의 본질적인 성격상 지금까지의 모든 연방주의 전통을 없애고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이러한 유대인 통합기관의 탄생을 환영하였다. 이 기관은 유대인공동체와 외국의 지원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다. 결국 이 기관은 1933년 9월 17일에 ‘독일제국 유대인대표자회의(Reichsvertretung der deutschen Juden)[이하 RV]’으로 통합되어 유대인들의 교육과 생존권을 위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해외이주촉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레오 백(Leo Baeck)을 의장으로 한 RV는 세 개의 중요한 유대인 조직, ‘유대신앙의 독일시민중앙회(Der Centralverein deutscher Staatsbürger jüdischen Glaubens[이하 CV])’, 유대인 참전용사 제국연맹(Reichsbund jüdischer Frontsoldaten[이하 RjF]) 그리고 시온주의자들을 토대로 하였다. 1938년에는 ‘독일제국 유대인연맹(Reichsvereinigung der Juden in Deutschland[이하 RVJ])’로 이름을 바꾸고 나치조직의 한 기구로 편입되었지만 1943년까지 독일유대인의 이익을 대변하였다(Rürup 1995. 78-85).

1935년 9월의 ‘뉴른베르크 법안(Nürnberger Gesetz)’으로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법안은 혈통에 기초한 독일주의와 유대주의 사이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되었다. ‘제국시민법안(Reichsbürgergesetz)’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2등 시민으로 전락하였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과의 결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적관계도 금지 당했다. ‘독일혈통과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법안(Gesetz zum Schutz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도 유대인추방정책과 절멸정책에 운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대인들은 이 법안으로 제3 제국에서 낮은 지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동체의 자격(누릴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상실되었지만)을 부여받은 것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탄압조치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유대인 의사들과 변호사들은 그 자격을 상실하였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신고해야 했으며 유대인 회사는 더 이상 공적인 계약에서 배제되었고 유대인 아이들은 이제 독일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유대인들은 여자에게는 ‘사라(Sara)’와 남자에게는 ‘이스라엘(Israel)’이라는 이름을 강제로 갖게 되었으며 여권에 붉은 색의 J의 알파벳을 적어 넣게 함으로써 신상서류에도 유대인의 낙인이 찍히었다. 수많은 조치들은 증오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수영장이나 휴양지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공원 벤치에 붙어 있는 ‘아리아 인종만 사용할 수 있음(nur für Arier)’이라는 팻말은 더 이상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1938년 11월에 일어난 ‘제국수정의 밤(Reichskristallnacht)’사건은 유대인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신호였다. 민족사회주의자들은 1938년 11월 7일 프랑스 파리의 독일대사관의 Legationssekretär 암살사건을 유대인에 대한 경제적 약탈과 추방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독일을 위협하는 국제유대주의의 음모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되었다. 돌격대(SA), 친위대(SS) 그리고 나치당원들이 주도한 포그롬은 수백 명의 유대인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이 때 독일 시민의 일부분은 자발적으로 포그롬에 참여하거나 방관자로서 환호하기도 하였다. 1,000여개의 회당과 7,500개의 유대인 상점이 파괴되었으며 몇 개월 사이에 3,000명의 유대인 성인남자들이 집단수용소로 끌려갔다. 더불어 유대인들은 이제 경제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주를 강요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벌써부터 독일을 떠나려고 하였지만 어느 국가도 이들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몇몇 국가들이 이주제한조치를 완화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70,000여명의 유대인들이 도피할 수 있었다. 1939년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주는 더욱 힘들어져 결국 1941년에는 완전히 금지되어 1940년의 15,000명의 이주민 숫자가 1941년 중반까지 80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Hilberg 1992, 49-51).

대부분의 독일유대인들은 193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나치의 유대인 탄압이 극단까지 치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 했던 것 같다. 독일유대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독일국가시민으로, 그리고 독일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1933년의 첫 번째 해외이주 물결은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독일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독일을 떠나는 계획은 고려하지 않았다. 독일유대인들에게 독일을 떠난다는 것은 몇 세대에 걸쳐 이룩해놓은 생존의 유산, 특히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한순간에 상실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해외이주를 위해서는 엄청난 특별세와 비용이 든다는 점 그리고 바로위에서 서술한 많은 국가에서 이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는 이주의 결정을 더욱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이주를 할 수 없었거나 이주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20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탄압은 더욱 강화된 형태로 이어졌다. 1938년 11월 12일의 ‘독일경제생활에서 유대인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Verordnung zur Ausschaltung der Juden aus dem deutschen Wirtschaftsleben)’으로 유대인들은 결국 경제적 파산으로 내몰렸다.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강제노동의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자신들의 주택에서 쫓겨나 ‘유대인공동주택(Judenhäuser)’에 집단수용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한된 짧은 시간에 정해진 상점에서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배제되었으며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인 1941년 9월 1일의 경찰규정으로 ‘황색의 별’을 달고 다녀야만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쉽게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제정책(Ausgrenzungspolitik)에 교회도 참여하였다. 1939년부터 유대인 출신 교회성직자와 교회관련 공직자들은 모두 퇴출당했다. 몇몇 지역교회들은 비아리안계 신도들의 교회출입을 금하였으며 일반병원이나 정신병원은 더 이상 유대인 환자들을 받지 않았다. 1941년 10월에는 유대인 탄압정치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다. 조직적인 대량 강제이주와 동쪽지

역에서의 독일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그 수가 20만 명에 이른다(Hilberg 1992, 62-65).

나치정책이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대인 문제'를 독일에서의 추방 또는 이주로 했다면 전쟁발발 이후 폴란드 점령과 이어지는 유럽의 많은 부분의 지역들을 점령함으로써 유대인 문제는 이제 '유럽적인 문제'가 되었다. 새로운 상황으로는 '대량이주'와 '강제이주'를 목표로 하는 중·단기적 계획(한 예로 '마다가스카르 플랜(Madagascar-Plan)'을 들 수 있다.)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 이주정책과 인종정책은 유대인 문제의 간단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히틀러(Heinrich Himmler)는 1940년 12월 유대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580만 명의 유대인을 독일민족의 유럽경제지역에서 앞으로 결정될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들은 독일군대의 소련침공으로 취소되고 말았다. 사실 나치의 유대인 정책은 1941년 여름까지 강제이주, 노동수용소와 게토의 설치 그리고 살육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941년 가을 부터는 특무대(Einsatzgruppe)의 조직적인 살육이 시작되었다. 점령 9개월 사이에 이미 75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나치주의자들은 소련과의 전쟁을 유대적이고 볼셰비즘적인 민족과 싸우는 세계관의 전쟁으로 간주하였다. 이 지점에서 볼셰비즘과 슬라브주의는 민족사회주의와 게르만주의와 대립하고 있었다. 히틀러의 유대인 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결'인 홀로코스트는 반유대주의의 비합리적 특성이 고도의 정치기술, 절대권력, 훈련된 군대, 산업과 결합된 결과였다. 이러한 유대인 절멸에 독일 국방군(Wehrmacht)도 참여하였다. 유대·볼셰비즘 체제와의 투쟁목표는 독일문화에 대한 아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었다.³⁾

'최종해결책(Endlösung)'은 동유럽지역에 국한한 것은 아니었다. 제국안전부 장관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Reinhard Heydrich)는 독일점령지역에서의 유대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1942년 1월 20일 장관들과 당 지도위원들을 '반제회담(Wannsee)'에 초대하였다. 여기서 집단수용소와 게토에서의 강제노동과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의 강제이주 그리고 자체적으로 건설한 '죽음의 공장'에서의 절멸에 대한 가공할만한 프로그램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쟁에서의 나치의 패배가 점점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패배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반유대주의가 히틀러와 나치지도부에게 어느 정도로 강박관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대인 절멸정책은 나치 행정부의 모든 기구와 조직의 자발적인 협력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재무부, 경찰서, 제국철도청, 국방군 그리고 당 지도부들의

3) 독일은 오래전부터 유대인과 러시아인을 아시아인으로 간주하였으며 소련의 볼셰비즘 체제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협조는 특기할만한 하다.

최종해결책의 첫 번째 단계로서 독일유대인들의 ‘강제이송(Deportation)’은 1941년 10월부터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 그 명분은 유대인들을 노동수용소나 집단수용소로 이송하는 것이었다. 194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독일 여러 도시에서 강제이송을 위한 ‘수송(Transporte)’이 진행되었다. 여기서 나치가 강제이송을 수송이란 단어로 쓴 이유는 좀 더 온건한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분명한 의도를 은폐하려는 것이었다. 나치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들의 유대인 강제이송을 수송이라는 단어 이외에도 또 다른 온건한 표현방식으로 달리 명명하였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의 이주’, ‘노동을 위한 소개(疏開)’, ‘요양 보내기’, ‘이주’ 같은 단어로의 표현이 그것이다(Kaplan 2003, 165).

나치정권이 ‘강제이송’의 용어개념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피해자인 유대인에게, 더불어서 독일민족에게 ‘강제이송’의 진정한 의미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유대인들은 고립되었고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보와는 차단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른 독일인들과 일반적으로 단절되어 살고 있었으며 라디오도 소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인종학살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는지, 강제이송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결말은 무엇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든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의도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중 어떤 이들은 닥친 운명에 절망하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여하튼 강제이송은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의 수많은 회고록과 인터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강제이송은 저항에 있어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도피, 은신 그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데, 즉 저항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IV. 유대인의 적극적 저항

1. 허버트 바움 그룹

1939년-1942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유대인 젊은이 저항단체 중 하나였던 ‘허버트 바움그룹(Herbert Baum - Gruppe)[이하 바움그룹]’은 전투적 저항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움그룹의 조직원들은 공산주의 성향의 지하운동단체로서 일찍부터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져

독일 공산주의 청년연맹(KJVD) 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청년단체 소속원이기도 하였다. 허버트 바움은 1934년부터 36년까지 공산주의 청년연맹 베를린 남동부 조직책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만 해도 KPD(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 독일공산당)는 유대인출신 당원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바움은 다른 유대인 동료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저항단체를 조직하였다. 허버트 바움(Herbert Baum)은 먼저 그의 부인 마리안느 그리고 친구 코흐 부부(Ehepaar Sala und Martin Kochmann)와 함께 때를 맞춰 바움그룹을 결성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았던 것이다. 이들 모두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1902년 같은 해에 태어났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낼 정도로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유대인 혈통으로 청소년시기부터 이미 유대인 청소년운동에 참여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이들은 노동자계층과 소시민계층에 속했으며,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는지 정치적 성향도 유사하였다. 이들은 모두 좌파적 정치성향, 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유사한 성장배경 속에서 이들이 불법적 저항투쟁에 적극 나서게 된 동기는 첫째, 나치의 민족사회주의와 대적하였던 좌파의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점, 둘째는 차별과 탄압을 받았던 유대인이라는 점, 셋째는 일반적으로 나치의 획일화정책을 반대하였던 젊은이라는 점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이들 네 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이후 유대인 젊은이들이 가입하면서 조직의 모양새를 갖추었으며 반파시스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바움 부부는 당시 베를린-스판다우(Berlin - Spandau)에 있는 지멘스-엘모 공장(Siemens-Elmo Werk)의 소위 '유대인 부서'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일하고 있었다. 이곳 유대인 강제노동자 사이에서 바움그룹이 탄생하였다. 바움그룹의 회원 수는 최고의 전성기 때 100여명이었으며 이들의 정치적 성향은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시온주의자, 중도파 등 다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류는 공산주의자였으며 연령은 일반적으로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다. 바움그룹을 위시해서 일반적인 적극적인 저항단체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젊은이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들은 시온주의 성향이건, 자유주의 성향이건 대부분 유대인 청년운동 출신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유대인들이 단체가 아닌 각 개인이 반파시스트 저항 또는 공산주의 저항단체에 가담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아놀드 파우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장하기를 반파시스트 저항에 참여한 유대인들이 독일인들보다 인구비례 상 훨씬 많았다고 한다. 유대인들이 반파시스트 공산주의 지하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 보수주의 저항운동에서 유대인들을 기꺼이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Pauker 1995, 121-125).

독일유대인의 유일한 연합체인 RVJ는 제국보안국(Reichssicherheitshauptamt[이하 RSHA])의 하부기관이었다. RVJ는 전쟁이 발발하자 공식적으로 유대인 젊은이들의 반파시스트 저항운동을 하지 못하게 노력을 기울였다. RVJ은 유대인들의 불법행위, 사보타지,

반전운동 그리고 반파시트운동 같은 것들은 독일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공할 위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소연 하였다.(Paucker 1995, 212) 그러나 적극적인 젊은 유대인 반파시스트 운동가들은 이러한 RVJ의 위협에 동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RVJ 지도자들을 경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소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젊은 반파시스트들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유대인 젊은이들은 저항의 길을 선택하였고 동시에 대부분은 공산주의 청년조직과도 연계하였다. 유대인 젊은이들은 반파시스트 운동에 있어서 공산주의 청년조직 만큼 열정적이고 매우 잘 조직되어 있으며 신념에 차있는 단체를 찾을 수 없었다.

2. 공개적인 항의

유대인들의 공개적인 저항은 독일유대인의 타협하지 않는 태도의 한 유형이었다. 이러한 유형은 전체주의 체제의 요구나 청원에 거부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체제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독일유대인들은 분리와 배제라는 나치의 탄압정책에 맞서 편지와 청원서의 형태로 항의하였다. 유대인 랍비와 공동체 지도자들 그리고 다양한 유대인 조직들의 지도자들은 나치의 부당함에 큰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9년 이후에는 유대인의 공식적인, 그리고 공개적인 항의는 거의 모습을 감추었다. 이러한 현상은 점증하는 테러의 결과였다. 더욱이 추방과 해외이주 그리고 강제이송으로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는 크게 줄어들어 유대인의 공식적인 항의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강제이송이 시작되고 나서도 여전히 독일유대인들을 대표하던 자들은 항의활동을 전개하였다. 1940년 10월에는 바덴, 팔츠 그리고 자르란트 지역의 유대인들이 전격적으로 남프랑스로 추방되었을 때 RVJ는 항의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RVJ는 7000명의 유대인들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2일 후에서나 들었다. 이에 평의회 의장 오토 히르쉬(Otto Hirsch)는 정식으로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에게 추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서 추방된 자들을 귀환시켜 달라고 간청하였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RVJ의 지도부가 사임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RVJ는 이 사건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사순절(Fasten)과 기념일을 엄수하며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모든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모든 강경한 태도는 외국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항의는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다. 제국보안국은 항의요구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작성에 가담하였던 RVJ의 지도부의 한 명이었던 율리우스 쉐리크존(Julius Seligsohn)을 체포하여 1940년 11월 작센하우젠(Sachsenhausen) 집단수용소에

서 처형하였다. 3개월 후 RVJ의 지도부 의장이었던 오토 히르쉬도 결국 마우트하우젠(Mauthausen) 수용소로 끌려가 처형당했다. 이 사건으로 유대인을 대표하던 RVJ의 저항활동은 완전히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을 위한 새로운 기구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는 앞으로 유대인들의 원활한 강제이송만을 돕는 역할만을 담당할 행정부서의 하나로 전락하였다(Paucker 1995, 97-99).

3. 규정위반

1941년 가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겉옷의 왼쪽 가슴에 '항상 잘 보이도록' 노란색의 커다란 육각형의 별을 달아야 만하는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유대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마비시킬 정도로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이제 별을 단 유대인들은 항상 그리고 사방에서 감시당하면서,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몇몇 유대인들은 별을 달지 않음으로써 '규정을 어기는'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이들은 별을 달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나는 대담성을 보였다. 당당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콘서트나 연극 그리고 극장을 다니면서 전과 다름없이 문화생활을 즐겼다. 유대인이 실수로 별을 달지 않을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규정을 위반하는 소규모의 집회도 있었다. 예를 들면 베를린에서는 소규모의 경건한 유대인 집단이 유대명절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유대인 공동묘지에 모여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런 모임은 나치가 붕괴되기 직전 까지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의 위협 속에서도 유대전통과 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려는 의지의 한 표현으로서 저항의 한 유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 다른 특별한 집회는 1940년 가을 바움그룹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유대인 청년공산주의자로 유명한 루디 아른트(Rudi Arndt)가 부헨발트(Buchenwald) 집단수용소에서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추모집회를 열었다. 베를린 바이센제(Weissensee)의 유대인 공동묘지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참여한 많은 유대인 청년들(60-70명)은 다시 한 번 투쟁정신을 되새겼다고 한다(Paucker 1994, 78-79).

4. 삐라의 제작과 유포

불법간행물의 제작과 유포는 유대인들의 또 다른 유형의 저항이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강제이송이 이어지면서 독일유대인들은 선동책자와 선전삐라를 유포하였다. 이런 불법적인 책자와 삐라들은 정보와 정보제공과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적대적 투쟁에 대한 정보와 은신처 정보 그리고 집회소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생존의지와

저항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선전수단은 거의 모든 정치적 저항단체,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잘 응용하였다. 정치관련 도서와 전단지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작업은 1939년, 1940년 베를린 바움그룹의 적극적인 반파시스트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침공을 시작하면서 더욱 활발한 저항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이 그룹은 그 해 가을부터 1942년 여름, 그룹의 조직원들이 대거 체포될 때까지 불법 정치책자와 전단지를 제작·유포하는 것을 투쟁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ikarski 1978, 95) 이러한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유대인문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며 또한 저자가 유대인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작업도 중요하였다.

바움그룹의 반파시스트 투쟁선언은 공산주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이들은 문서나 책자를 통해 나치정권의 정책과 전쟁수행에 반대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치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의견들을 규합해서 반파시스트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행방안들을 모색하였다. 1941년 10월 “상황에 대한 간략 보고(Kurzbericht zur Lage)”와 같은 해 11월 반파시스트 투쟁잡지 “승리로 가는 길(Der Weg zum Sieg)”가 발행되었으며 “천천히 일하세요(Arbeite langsam)”와 “소련과의 전쟁에서 패배를!(Nieder mit dem Krieg gegen die Sowjetunion!)”이라는 제목의 삐라가 뿌려졌다. 1941년 12월 “해결책(Der Ausweg)”이라는 이름의 6면지 신문을 발행하여 전쟁터의 독일 군인들에게 뿌려졌다. 1942년 초에는 “베를린 주부들에게 드리는 호소문(Aufruf an die Berliner Hausfrauen)”을 만들어 뿌려지기도 하였다. 바움그룹은 나치정부의 독일국민의 영양상태에 대한 보도를 거짓선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부들에게 식량부족 실태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삐라를 배포하였다. 1942년 3월에는 “독일 의사들에게(An die deutsche Aerzte)”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만들어 독일의사들에게 편지로 송부하였다. 독일 부상군인들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즉각 파시즘에 저항하라는 내용이였다.(Kwiet 외1984, 122-125) 이 시기의 일반적인 삐라의 내용에는 전쟁의 참상을 전하면서 즉각적인 전쟁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한 독일국민들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 나치정권의 거짓선전을 믿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독일국민들이 나치정권에 저항함으로써 나치체제의 붕괴를 앞당길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특별히 유대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나치체제의 붕괴가 곧 유대인 해방을 의미하였으며 유대인 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나치정권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5. 사보타주

저항의 또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일터에서의 사보타주는 독일유대인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가혹한 처벌에 대한 심리적 위축과 유대인에 대한 특별하고도 빈틈없는 감시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유대인의 사보타주는 독일인과는 달리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보타주에 가담한 유대인은 그 즉시 집단수용소로 강제이송 되었다. 죽음과 다름 바 없었던 집단수용소의 실상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보타주를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행위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리고 일터에서의 유대인의 감시체계는 특별한 것이었다. 유대인 노동자집단은 비유대인들과 철저히 분리시켜 놓았다. 일터에서 유대인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규정하고 유대인은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이 영역은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졌던 공간이었다. 즉 일이 끝난 경우에도 유대인 노동자들은 출구를 벗어 날 때까지 감시자가 바짝 붙어 규정에 어긋나는 어느 무엇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타주가 가능한 곳에서는 유대인들은 사보타주를 감행하였다. 여기서도 바움그룹이 사보타주를 주도하였다. 허버트 바움과 일제 학(Ilse Haak)은 그들의 일터였던 지멘스-일모-공장에서 강제노동에 끌려왔는데 이곳에서 이들은 가혹한 처벌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보타주를 감행하였다. 일제 학은 공장 안에서 숙련된 전문기술자였으며 바움그룹 안에서는 대담한 용기를 가진 활동가였다. 그녀의 일터였던 지멘스-일모-공장은 군함이나 잠수함(U-Boot)의 엔진과 그 부속품들을 생산하고 관리하던 곳이었다. 그녀는 또 다른 몇몇 반파시스트 활동가들과 함께 군함이나 잠수함의 중요부분이었던 엔진의 부속을 망가뜨림으로써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보타주를 감행하였다(Pikarski 1978, 117-119).

6. 시설물 방화

그러나 독일에서 유대인 저항운동 중에서도 가장 크고도 잘 알려진 것은 바움그룹이 주도한 반소비에트 전시회 방화사건이었다. '소비에트 천국(Das Sowjet-Paradies)' 제목의 이 전시회는 순회전시회(Wanderausstellung)로서 1942년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Berliner Lustgarten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는 그 제목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프로파간다 전시회였으며 공식발표에 의하면 130만 명이 관람하였다고 한다. 9000m² 공간의 대형 천막모양의 전시회장 안에는 사진, 그림, 그래픽, 소련에서 노획한 무기와 물건들로 채워졌다. 그중에서도 관람객의 주목을 끈 것은 백러시아의 수도, 민스크도시의 일부분을 모형을 만들어 움막에서 사는 러시아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더불어서 소련이라

는 국가 시스템이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었다. 전시회의 부제도 '소련의 가난, 타락, 위기'이었다는 점에서 전시회의 의도는 러시아인의 인종적, 문화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소련과의 전쟁의 정당성 그리고 전쟁에 대한 독일국민의 의지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전시된 상당부분은 사실 왜곡,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다.

1942년 5월 18일 바움그룹은 이 전시회에 방화를 감행하였다. 방화사건은 바움그룹 안에서 오랜 찬반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로 독일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닥칠 더욱 가혹한 탄압을 고려하여 찬반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바움 부부, 사라 코흐만 등 바움그룹 조직원들과 베르너 슈타인브링크(Werner Steinbrinck)를 중심으로 한 독일출신 공산주의자 반파시스트들도 2명이 가세한 거사 일에 이황화탄소 인화물질로 구성된 두 개의 화염병이 던져졌다, 그러나 불길은 곧 바로 잡혔으며 피해도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났다. 5월 27일 방화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500명의 유대인들이 체포되었으며 그중 반수는 그 다음 날 작센하우젠 수용소로 이송되어 바로 처형되었다. 나머지 250명도 후에 작센하우젠을 거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옮겨져 처형되었다. 방화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은 4일 후에 게슈타포에 모두 검거되어 허버트 바움 자신은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나머지 가담자들은 사형선고를 받아 3개월 안에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 사건으로 다음해까지 바움그룹의 조직원들은 대부분 체포 되어 집단수용소로 강제이송 되면서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결과만 놓고 볼 때 이러한 투쟁방식이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오래전부터 유대인 공동체 지도부는 바움그룹의 적극적인 투쟁에 불만을 품고 저항을 중단할 것을 호소해왔다. RVJ 지도부는 방화사건 한 달 후 1942년 6월 15일 독일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에게 일터에서 무책임한 행동은 단지 유대인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보타주를 자제해줄 것을 경고하였다.(Paucker 2003, 36) 방화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바움그룹이 저지른 방화사건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독일정부를 자극하는 일은 우리의 전통과도 맞지 않는 것이며 불필요한 저항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만을 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독일국민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Brandt 1984, 96).

사실 방화사건과 같은 유대인의 저항은 나치정권을 한 번도 흔들어 놓지 못하였으며, 전쟁의지를 위축시키지 못하였고, 유대인 학살의 강도를 완화시키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하다. 앞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그들은 젊은이로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불의를 참지 못하며, 부당함에 권리를 찾으려는 '젊은 유대인'들이었으며 민족사회주의의 권위적인 이데올로기와 쉽게 타협할 수 없었던 사회주의자들이었다는 점에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 자리에 그들이 나타났던 것뿐이었다("Wir sind da!"). 이것이

공개적인 전쟁터에서 무력으로 나타날 수 없는 저항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이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탄압 받는 소수집단의 저항에 미치는 영향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V. 소극적 저항⁴⁾

앞에서도 짧게 서술한 것처럼 소극적 저항은 예를 들면 법을 어기면서 생존을 실천하는 모든 범주를 일컫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탄압을 피해 도피하는 행위는 빨치산에 가담하여 숲속에서 무력으로 싸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무장의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 생명을 보존하는 행위, 절멸수용소에서 탈출하는 행위, 허위문서나 허위신분증을 만드는 일, 은신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식품과 돈을 제공하는 일, 유대인의 도피나 은신을 돕는 모든 행위, 나치의 탄압과 유대인의 고통을 후대에 알릴 목적으로 글을 쓰는 일 조차도 저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혹해지면서 유대인들은 더욱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1941년 말 유대인들의 해외이주가 금지되고 동유럽으로의 강제이송이 시작되면서 독일 유대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불안감도 극에 달하게 되자 독일에 남아있던 164,000명의 유대인들에게 나치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대안은 두 가지뿐이었다. 하나는 불법행위로서 박해를 피해 도피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는 해외로의 도피와 이주 그리고 국내에서의 은신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다. 위법적 도피는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오랫동안 은신하는 것으로 노약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하여 단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자살은 일반적으로 나이든 노인들에게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 두 대안은 나치체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소극적 저항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순간, 즉 나치가 유대인들을 절멸하려 한다는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몸을 피해 은신하였다. 특히 주변의 유대인들이 강제 이송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신하기로 결심하였다. 은신하였던 유대인들 중 1/3은 집단수용소로의 강제이송 통보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던 자들이라면, 나머지 2/3는 이러한 통보 이전에 은신하였

4) 소극적 저항에 대해서는 줄고 '나치체제에서의 독일유대인의 저항연구-도피, 은신 그리고 자살을 중심으로'(독일연구 29호)의 내용을 수정하여 축약하였음.

다. 당시에는 연합국의 승리가 매우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은신이라는 지하에서의 불법적인 생존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저항하는 것은 무모한 모험으로 보였다. 잠적한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도피할 수 있을지, 돈이 언제 바닥이 날지 그리고 허위 신분증명서가 언제까지 들키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 하였다. 독일 유대인의 적극적 저항의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치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유대인의 생명을 구한다든지, 그들의 은신을 돕는다든지 그리고 스스로 연명을 하는 것조차 나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 집단은 기독교 사회와 문화 속에서 위기 때마다 도피하거나 은신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의식 속에 살아 있는, 생존을 위한 원동력이었다. 넓은 의미의 도피는 유대인 절멸정책에 저항하는 한 유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나치체제의 요구를 거부하는 유대인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Maren 1987, 301).

'수정의 밤'과 제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있었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유대인 난민들 특히 청소년들을 대거 학살하였던 포그롬 사건을 인식한 이후 독일 주변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국경선을 개방하였기 때문이었다 (Kwiet 외 1986, 156). 그러나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나치가 그들의 지배영역을 확대하면서 유대인들의 도피통로는 크게 축소되었다. 독일의 모든 국경선은 1939년 9월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폐쇄되었다.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은 유대인의 모든 유입을 차단하였으며 중립 국가들도 입국자의 수를 크게 제한하였다. 유럽 이외의 국가로의 이주는 운송수단의 제한과 이주비용의 부족으로 거의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전쟁 첫째 소수의 유대인들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중국 상하이로 탈출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도나우강을 따라 흑해로 탈출하는 해외도피는 엄청난 경비가 필요하였다. 더욱이 독일 측에 가담하여 전쟁에 참여한 이탈리아가 1940년 6월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뱃길도 거의 폐쇄되었다. 결국 1941년 10월 1일 해외이주는 나치당국에 의해 완전 금지되었다. 그리하여 도피는 대규모의 강제이송이 시작되면서 바로 실행되었다. 도피 루트는 서쪽에서는 프랑스를 경유해서 스위스로, 그리고 피레네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또는 그곳에서 리스본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으로의 도피는 역시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예를 들면 스위스로의 도피는 많은 돈과 허위 신분증 그리고 도피를 도와줄 현지인들과 건강한 체력이 필수적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 국경을 벗어나는 일은 소수의 돈 많은 유대인 젊은이에게만 해당되었다. 강제이송을 피해 도피한 유대인의 수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나치 집권이후 해외이주나 도피에 성공한 유대인들은 전체 유대인의 반 이상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 유대인들을 동유럽으로 추방하여 강제이송 하는 계획이 1941년 중반에 가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세워졌다. 강제이송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던

유대인들의 첫 반응은 지하로 숨어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항세력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위법행위는 익숙한 것도 아니었으며 매우 위험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충성된 독일국민으로 법을 준수하는 일이 중요한 일상이었다는 점에서 ‘은신(Untertauchen)’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주변 환경과 단절하는 것이었으며 합법적인 생존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지하로 숨어들어간 도망자가 되었다. 은신의 시기도 다양하였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수용소로 강제이송 되거나 또는 스스로가 끌려 갈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비로소 지하로 은신하려는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지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몸을 피해 지하로 숨어들어갈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은신하였던 유대인들에게도 신분증명서와 취업증명서가 필요하였다. 유대인들이 거리를 돌아다닐 때 불심검문에 대비하여 위조된 증명서는 필수적이었다. 더욱이 전쟁에 나가야 할 나이의 젊은 유대인들에게는 신분증명서 외에도 병역증명서(Militärpapier)도 필요하였다. 유대인들은 때때로 자신들을 숨겨 주었던 독일인들에게도 자신의 실제적인 신분을 숨기기도 하였다(Geisel 1993 29-32). 그러나 정작 도움의 손길은 또 다른 유대인으로부터 왔다. 지하에서 활동하면서 유대인들의 은신을 도왔던 대표적인 유대인 저항단체는 ‘chug chaluzi’였다.

chug chaluzi는 개척자 그룹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이다. 유대교적·시온주의적 성향의 이 단체는 지사크 쉬베르젠츠(Jizchak Schwersenz)와 그의 여자 친구 에디트 볼프(Edith Wolff) 그리고 시온주의 청소년지도자들이 1943년 2월 27일 베를린 프리데나우 지역에서 설립하였다. 1943년 2월 소위 ‘Fabrikaktion’⁵⁾ 사건으로 베를린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유대인들이 강제이송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베를린의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던 중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 사건은 바로 로젠슈트라세(Rosentrasse)시위⁶⁾를

5) ‘Fabrikaktion’은 1943년 2월 27일까지 베를린의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여전히 베를린에 남아 있던 마지막 유대인들을 강제이송하기 위해 대거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6) 잘 알려진 베를린 로젠슈트라세(Rosentrasse) 시위는 유대인 강제이송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다. 1943년 2월 27일 친위대와 비밀경찰은 전쟁물과 공급을 위한 공장에서 강제 노동하던 유대인 약 1,000명을 체포하여 여러 수용소로 이송하였다. 이 유대인들 중에는 수많은 족외혼 유대인들과 그 자식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나치의 만행에 유대인 배우자 독일 여성들이 먼저 모임을 결성하여 남편 석방을 위한 거리시위에 들어갔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이 알려지게 되자 유대인 여성들이 뒤를 이었으며 그 다음은 그들의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지나가던 독일인들 까지 시위에 합세하였다. 비밀경찰과 친위대는 시위대에게 해산하라고 위협하였지만 실제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인 3월 6일 강제이송이 결정되었던 유대인들을 석방하였다. 그 배경으로 나치정권은 유대인들의 독일 친척의 감정을 정서를 고려했을 터이고 한 달 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패배로 침울해진 국내 분위기 속에서 독일국민들의 일부 집단일지라도 그들을 공연히 자극할

야기했으며 'chug chaluzi' 단체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쉬베르젠츠는 'Fabrikaktion'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유대인 청소년단체 소속의 유대인 청소년을 규합하여 이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신뢰'와 '비밀발설금지'였다.⁷⁾ 이들에게 더 이상 독일은 그들의 희망도 아니었으며 더더욱 고국은 이미 아니었다. 이제 이들에게 팔레스타인이야말로 새로운 미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단체의 중요한 일은 유대인들, 특히 청소년들이 해외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특히 스위스로의 탈출 루트를 이용해 도움을 주었는데 이 루트를 이용해 쉬베르젠츠 자신도 1944년 2월 탈출하였다. 스위스에서 그는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 베를린에서 활동하던 이 단체를 지원하였다. 또한 이 단체는 은신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량, 위조문서 그리고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때에는 독일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들은 생존문제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의 보존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유대주의의 보존은 유대교 명절을 기념하고 시온주의적이고 유대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나치에 저항하는 정치적, 일상적 저항의 한 유형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였다.⁸⁾

나치는 1941년 봄, 전 유럽의 유대인들을 절멸시킬 것을 결정하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조직적인 유대인 학살은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 유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강제이송이 시작되었다. 강제이송은 유대인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사실 유대인의 삶에서 절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941년 말 이후 유대인의 절망은 그 이전과 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감행하였다. 자살은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 잔인성이 드러나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자살률의 증가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매우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932년과 1934년 사이에 유대인의 자살률이 처음으로 그 이전보다 50% 증가할 정도였다. 이 시기에 334명의 유대인들이 자살 하였는데 그 중 122명이 여성이었다. 자살은 오스트리아 합병으로 또 한 번 증가하였으며 '11월 포그롬' 시기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Kwiet 외 1986, 205-207).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Stoltzfus 1999 참조).

- 7) 소속원이 체포되었을 때에도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단체는 나치가 붕괴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40명 정도의 소속 원 중에서 30명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건국과 정부수립 그리고 정치활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갔다.
- 8) 이 조직 외에도 은신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지원하였던 또 다른 단체는 'Die Gemeinschaft für Frieden und Aufbau'였다. 이 조직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유대인 도피자들을 도우며 반전 선전에 열을 올렸다(Paucker 1995, 76-82 참조).

유대인들의 이러한 자살은 나치를 크게 당황하게 하였으며 끝내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치는 유대인들의 운명이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죽음의 시스템 안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했었다. 유대인 자살은 이러한 나치의 의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절멸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일종의 저항이라 할만하다. 그래서 나치는 자살에 실패한 유대인들을 먼저 절멸시스템 안으로 끌어넣는 일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전체 인구의 0.03%를 차지하였다. 자살률을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콘라트 크비트(Konrad Kwiet)에 의하면 나치 지배기간동안 1만 건의 유대인 자살 건수가 있었는데 그 중 3,000 ~ 4,000 건이 강제이송 시기에 발생하였다. 또 다른 주장처럼 자살이 5,000건이었다는 조심스러운 통계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1933년 독일에 살고 있던 유대인 525,000명의 1%가 자살하였음을 의미한다. 1941년-43년 사이에는 유대인 134,000명 중 3,000명이 자살 할 정도로 자살률은 2%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특히 베를린에서는 약 4%의 자살률을 기록하였다. 나치로부터 강제이송에 대한 통보를 받은 유대인들의 10%가 자살할 정도로 강제이송은 자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하튼 그들은 절망하여 자신들의 '자유로운' 죽음을 결정하면서, 즉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Ⅵ. 나가는 말

독일유대인들이 진실로 전투적, 군사적 저항에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유대인의 소극적 저항에 해당하는 은신과 자살을 저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들은 여전히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나치 지배 하에서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단지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묘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태도와 행동은 역사적인 배경과 외부의 강요된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태도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일련의 방어적 반응과 생존전략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반파시트 뼈라의 제작과 유포 그리고 사보타주와 시설물 방화와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적응과 협조, 이주와 도피 그리고 잠적과 자살과 같은 소극적인 저항을 의미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은신은 생존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용기 있는 시도였으며 또한 유대민족을 예외 없이 말살하려는 나치의 목표에 대한 명백한 저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치는 유대인들의 운명이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죽음의 시스템 안에서 처리되

기를 기대했었다는 점에서 자살은 나치를 크게 당황하게 하였으며 끝내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대인 자살은 나치의 의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절멸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일종의 저항이라 할만하다.

유대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느냐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나치의 탄압의 강도와 같은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어느 신분에 속하였느냐, 어느 직업에 속하였느냐, 어느 연령대에 속하였느냐, 어느 정도로 독일 사회와 문화에 동화되었느냐, 어느 계급에 속하였느냐와 같은 유대인 내부의 환경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나치의 박해에 대한 독일유대인들의 다양한 태도와 반응은 저항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전체주의 독재체제에 대한 순응과 저항사이의 다양한 지형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항운동이 앞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권력남용에 대항해서, 한 국가의 민주적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라면 나치체제에 대한 유대인의 저항은 대체로 생존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유대인의 저항은 공격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저항보다는 소극적인 저항과 거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치의 박해에 대한 독일유대인들의 다양한 태도와 반응은 저항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전체주의 독재체제에 대한 순응과 저항사이의 다양한 지형이 존재하였음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 최형식. 2015. 나치체제에서의 독일유대인의 저항연구 - 도피, 은신 그리고 자살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29, 279-321.
- Brandt, Leon. 1984. Menschen ohne Schatten. Berlin
- Broszat, Martin/ Frei, Norbert. 1989. Das Dritte Reich im Überblick. Chronik, Ereignisse, Zusammenhänge. München.
- Friedlander, Henry. 1997. Der Weg zum NS-Genozid. Berlin.
- Geisel, Eike. 1993. Störenfriede der Erinnerung. Berlin.
- Hilberg, Raul. 1992 Täter, Opfer, Zuschauer. Die Vernichtung der Juden 1933-1945. Frankfurt a.M.
- Jochmann, Werner. 1994. Zur Problematik des Widerstandes deutscher Juden: Arno Lustiger. Zum Kampf auf Leben und Tod! Das Buch vom Widerstand der Juden 1933-1945. Köln.
- Kaplan, Marion. 2003. Geschichte des jüdischen Alltags in Deutschland vom 17. Jahrhundert bis 1945. München.
- Kershaw, Ian. 2009. Der NS-Staat. Hamburg
- Krüger, Maren. 1987. Alltag im Berliner Untergrund: R. Erb/M. Schmidt, ed., Antisemitismus und Jüdische Geschichte. Berlin.
- Kwiet, Konrad/Eschwege, Helmut. 1986. Selbstbehauptung und Widerstand. Deutsche Juden im Kampf um Existenz und Menschenwürde 1933 - 1945. Hamburg.
- Maren, Krüger. 1987. Alltag im Berliner Untergrund. Berlin.
- Paucker, Arnold. 1995. Standhalten und Widerstehen, Der Widerstand deutscher und österreichischer Juden gegen die nationalsozialistische Diktatur. Essen.
- Paucker, Arnold. 1994. Jüdischer Widerstand in Deutschland: Arno Lustiger, ed., Zum Kampf auf Leben und Tod! Das Buch vom Widerstand der Juden 1933-1945. Köln.
- Paucker, Arnold. 2003. Deutsche Juden im Kampf um Recht und Freiheit. Berlin
- Peukert, Detlev. 2003. Inside Nazi Germany: conformity, opposition and racism

in everyday life, 김학이 역, 나치시대의 일상사. 개마고원.

- Pikarski, Margot. 1978. Jugend im Berliner Widerstand. Berlin
- Richarz, Momika. 1982. Jüdisches Leben in Deutschland, 3 vols. Reinbek bei Hamburg.
- Rürup, Reinhard. 1995. Jüdische Geschichte in Berlin. Bilder und Dokumente. Berlin.
- Schoeps, Julius H. 1998. Gab es einen juedischen Widerstand?: Julius H. Schoeps, ed. Das Gewaltsyndrom. Verformungen und Brüche im deutsche-jüdischen Verhältnis. Berlin.
- Steinbach, Peter/Tuchel, Johannes. 1994 ed., Lexikon des Widerstandes
- Stoltzfus, Nathan. 1999. Widerstand des Herzens. Der Aufstand der Berliner Frauen in der Rosenstraße 1943. München.
- Walk, Joseph. ed. 1981. Das Sonderrecht für die Juden im NS-Staat. Eine Sammlung der gesetzlichen Maßnahmen und Richtlinien. Heidelberg.

● 투고일: 2017. 03. 03. ● 심사일: 2017. 03. 03. ● 게재확정일: 2016. 05. 19.

Nazi Persecution and Jewish Resistance

Choi Hyungsik (Yewon Arts University)

This work is intended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manifold forms of Jewish resistance in the Years 1933 to 1945 give. After a brief description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this is the differences to the general resistance movement. In the same chapter the Jewish resistance is related to its objectives. Moreover, the problem of the Jewish Resistance in Germany. In the next chapter the Various forms of Jewish resistance to give a comprehensive picture. In fact, there were many forms of Jewish resistance. That's why Different questions arise. What was Jewish resistance at all? The Jews had a chance to oppose the National Socialists enforce? If so, by what means and with what success?

Jewish Resistance against the Nazis--planned and spontaneous, armed and unarmed--took many forms throughout WWII and the Holocaust. For many, the resistance was a struggle for physical existence. Some escaped through legal or illegal emigration. Others hid. Those who remained, struggled to obtain life's essentials by smuggling the food, clothing, and medicine necessary to survive.

Resistance was very hazardous. In addition to the direct threat to those engaged in resistance, there was a great risk of immediate retaliation by the Nazis to the larger population after an insurrection. Jewish resistance was also threatened by assassinations, sabotage, Espionage or exile.

<Key words> Jews, Resistance, Deportation, Herbert Baum Group, Refuge, Suicide